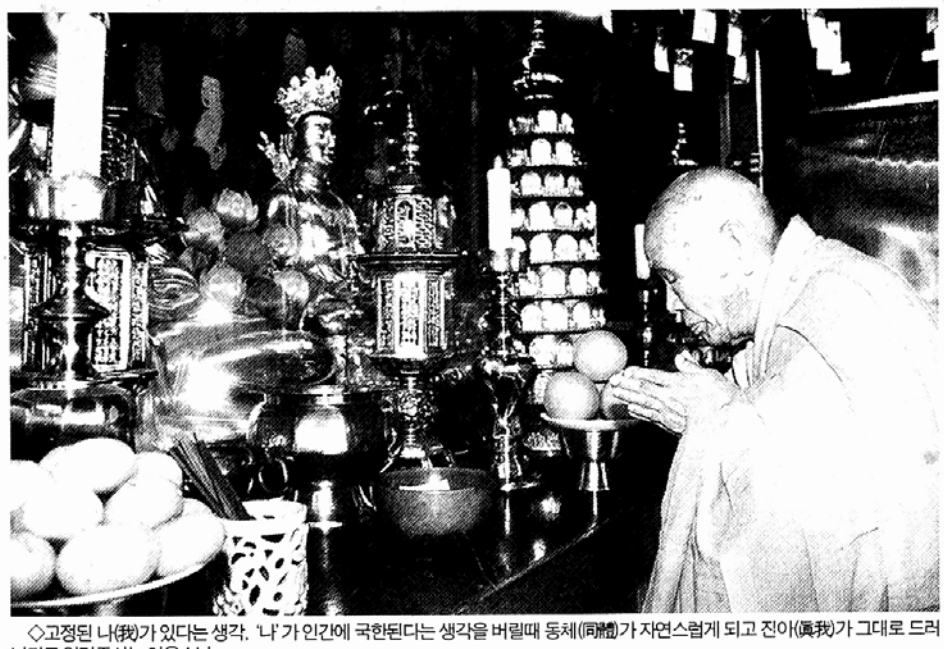
에 삶을 자신있고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 삶에 자신있고 적극적인 사람만이 죽음 또한 삶의 일부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야옹스님은 삶과 죽음을 한가지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둘이 아니고 한가지다, 즉 일여(一如)하다고 보는 깨침이 중요하다고 하신다.

야옹스님은 7살에 동진출가해 대승사에서 행자시절과 학인시절을 보냈다.

### 밥먹는 의식부터 철저히

대승사는 강원이 유명할뿐 아니라, 성철 자운 청담 스님 등 혁혁한 스님들이 기백당당하게 수행을 하던 쌍련선원이 있어 전국 제일을 구가하고 있었다. 강원에는 3백여 학승이 있었고 쌍련선원에는 1백여 수좌들이 화두에 몰입해 있어 대승사의 사격을 높이고 있었다. 스님은 대승사강원에서 대교과 까지 마쳤는데 학승이 많고 강사 강백이 많다보니 규율이 엄



◇고정된 나(我)가 있다는 생각, '나'가 인간에 국한된다는 생각을 버릴때 동체(同體)가 자연스럽게 되고 진아(眞我)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일러주시는 야옹스님.

> "삶에 적극적인 사람만이 죽음도 삶의 일부로 담담하게 받아들일수 있지"

격했고 공부가 매서울 수 밖에 없었다. 논강법으로 공부를 했는데 발표를 할 때 자꾸 지적을 받으면 가차없이 쫓겨났다. 머리가 명석했던 야옹스님이지만 늘 밤잠을 줄여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옛날엔 공부만 하면 됐어. 선방에서는 참선만 하면 됐고, 염불방엔 염불하고, 강원에서는 경전 공부하고… 저 할 것 열심히 하면 됐어. 한 15~6년 열심히 하면 강사로 나가고…"

당시 강주(講主)였던 김설하 스님은 전국에서 유명한 강백이였다. 설하스님의 가르침을 일러달라고 하자 스님은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며 다음의 말을 해주셨다. "불법이 어디에 있느냐. 세간살이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세상을 잊어버리면서 부처를 찾으면 마치 토끼뿔을 얻겠다는 것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마음은 반드시 망심가운데 있으니 망심을 여의고 마음을 찾으면 거북털을 구하는 것과 같다" 고 늘 말씀하셨다고 한다. 불법을 특별히 다른데서 찾으려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이 사바세계를 바로 열반세로, 부처와 중생을 둘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야옹스님이 진속불이(眞俗不二)를 설명하다가 "누더기가 뭔지 알아요?" 묻는다. "바로 누덕(累德)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물론 누덕누덕 기워서도 그렇지만 오래된 옷을 입은 만큼 그만한 덕을 쌓은, 즉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이 입었다는 뜻일 텐데 요즘 보면 30~40 먹은 새파란 중이 일부러 가위질해서 만든 누더기 입고 다니더구만. 왜 누더기를 입는지, 뭐가 누더기인 줄도 모르고 겉멋만 들어 그러는데 왜 출가했는지 본분사를 챙겨야 해. 요즘은 위계도 없고 위의도 모르고 엉망이야. 그러니 승풍이 바로 서지 않는 거지. 옛날에는 위계가 철저했어요. 그때는 밥먹고 옷입고 걸음걷는 것 등 모든 행동에서 위의가 엄격했지" 예전에는 밥먹는 의식부터 철저히 가르쳤다. 밥 하나 제대로 먹을 줄 모르면 중노릇 제대로 못 바운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요즘 속이 비어서 그런지 왜 그렇게 큰 것, 많은 것을 좋아하는 지 몰라. 원시불교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 야옹 스님이 갑자기 목청을 높였다.

"어디에 큰 절이 생겼다 해서 가 보니까 (작은)부처를 수만개 해 놓았더라구. 하나에 5만원, 10만원, 어떤 곳은 3만원에도 판다지? 이게 매불(賣佛)이지 뭐야. 안돼요, 안돼. 불법의 본뜻을 밝히고 널리 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저 사찰에 돈 들어오는 계산속만 밝혀 불상을 만들어 팔고 또 신도들은 '내가 불상 하나 맡았으니 복받을 거야' 만족해 하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일이야.

물론 부처님을 조성하는 공덕이 큽니다. 또 부처님이 계시는 절을 장엄하는데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하면 선연(善緣)을 짓는 일이지요. 내 말을 오해 하지 마세요. 불상만 크게, 많이 만들어놓는 것이 불교의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머물거나 그걸로 장사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겉모습에만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불법을 제대로 펴지 않고 방편만 중시한다면 그게 바로 달은 쳐다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죽어라고 보고 있는 꼴이예요. 즉 돈만을 밝혀 신도들을 속이지 말라 이거요.

내 신도 네 신도 가리지 말고, 네 절 내 절 가리지 말아야 해요. 원융불교해야 불교가 삽니다."

스님의 말씀이 가차없다. 등골이 오싹하다. 승속을 막론하고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일이 어디 한 둘 인가.

### 경전 가르침 생활속 실천

"불자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경계하라는 말을 늘 듣고 있을 거예요. '내가 있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자아란 실체가 없기에 자아에 대한 망상과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예요. 그런데 아가 다 없어졌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다만 개체적인 나가 없어진 거예요. 개체적 아가 없어지면 대아(大我), 즉 진아(眞我)는 그대로 튀어 나옵니다. 진아 그 자체가 부처예요. 본래 마음, 이것이 저절로 드러내 지게 되는 거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여의면 꽉 맥힌 멍청이가 돼버려. 그러나 단순한 멍청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일체지(一切智)가 나와요. 대원지(大圓智)가 확 솟아나오니까 그게 진아이고 그렇게 되면 보살이 되는 것이지요. 공(空)이란 말 한 자가 없는 공도리가 금강경에 잘 설해져 있어요."

제자 혜경스님의 표현대로 〈금강경〉을 가로로 세로로 사선으로 줄줄 꿸 정도로 〈금강경〉의 권위자로 불리는 야옹 스님은 불자들이 가장 즐겨, 널리 읽는 〈금강경〉을 그저 외울 것이 아니라 그 법구 하나하나를 잘 체득해 생활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 또 강조하셨다.

글=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사제 박성호거사(맨 오른쪽), 제자 혜경스님(맨 왼쪽)과 담소하고 있는 야옹스님.

## 원욱스님의 스님이야기 — 관문스님

〈법회와 설법〉 11월호를 읽다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반이 쓴 글을 읽으면서도 나는 반신반의했다. 갓김치를 만들어 판매한다는 내용을 보며 스님이 김치 버무리다 천진스럽게 장난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라 웃음이 나는 걸 보니 틀림없는 것 같다.

도반 관문(關門) 스님은 여수 은적사 주지다. 생김새는 그야말로 기골이 장대한 비구승이지만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다정다감한 스님이다. 처음 만났을 땐 그 능청스러움과 다감함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내게는 없는 그 푸근한 성격이 은근히 좋아지는 것은 세월 탓인 듯도 싶다. 은적사주지로 부임했을 때, 법당은 쇠락하고 신도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기도와 법회를 열심히 열었지만, 갖가지 이유로 사찰로부터 멀어진 신도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노심초사 고민깨나 할 때, 번개처럼 떠오른 것이 선농일치(禪農一致)! 스님은 우선 사찰 아래 놀고 있는 텃밭 천여 평을 일궈 녹차 밭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수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갓김치'를 생산하기로 마음먹었다. 남은 땅 1600평에 갓을 심고 가꾸었더니 처음엔 시큰둥하던 신도들이

### 갓김치 판매수익 장학금

### 선농일치 묵묵히 실천

땀범벅이 되어 일하는 스님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드디어는 스님보다 더 열심히 동참하더란다. 신도들이 스님을 도와 갓을 수확하고 갖가지 솜씨와 정성을 더하게 되면서, 은적사 텃밭에서 벌어진 이 야단법석을 통해 '은적사 갓김치'가 탄생되었다. 갓김치의 매력은 한번 먹어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게 되는 거지만 양념이 너무 진해서 덥썩 손이 가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여 '스님용 갓김치'도 만들었다. 그 맛이 소문이 나면서 제방의 스님들에게 인기가 솟고 있으니 괄리는 것이야 두말하면 잔소리다. 관문스님이 그걸 그냥 둘 리가 있겠는가. 당연지사, 수익을 지역사회에 장학금으로 회향하고 있으며, 지금은 시작 단계이지만 조금 지나 궤도에 오르면 갓김치 수익금을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기금으로도 쓰고 싶다고 한다.

사실 좋은 일들을 하는 이들은 처음엔 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주 극소수거나 시간이 흐를수록 본래의 뜻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평상시 노인들에게 아주 편안하고 정감있는 효심을 표출하고 있는 관문스님은 잘 해내리라 믿는다. 스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갓김치 생각도 나서 전화를 걸어 대뜸 "내게도 갓김치 주라!"했더니 "갓김치 먹고 싶나? 내가 괄 걷어붙이고 만들었으니 솔찬히 맛날걸. 청국장이랑 고추장도 보낼거나?" "보내주면 맛나게 먹지. 불사도 했다던데 고생이네? 농사지으랴, 불사하랴, 중노릇하랴!"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이여. 내 뭐 달리 할게 있남. 농사짓고 공부도 하고 그것이 중노릇이여! 안 그려? 허허허!"

군더더기 없이 단정한 그 말이 마음에 든다. 본시 백장(百丈)스님의 선원청규(禪苑淸規)에서 뜻하는 것도 노동과 참선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함이니 스님의 말에 더 공감이 갔다.

인도 불교는 스님들이 노동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첫째는 노동의 행위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살생에 대한 계율위반 행위 때문이고, 둘째는 정신적 스승이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던 때였고, 승려의 의식주는 전적으로 재가자들의 보시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구태여 권위를 실추시키면서까지 노동을 해야하는 사회적 종교적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중국으로 들어와 선종이 성립되면서 심산유곡에 있는 선찰들은 자연스레 자급자족을 하게 되었다. 스님들은 노동을 통해 경제적



의미보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외부 자연 속에 적용함으로써 노동과 자연의 결합을 통해 창조적 삶의 아름다움을 배우게 된 것이다. 그 속에서 자신을 비워내고 자연과 하나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를 깨달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즉 노동도 수행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노동을 통해 검게 그을린 얼굴은 고달픈 일상을 살아나가는 민중들에게 친밀감을 주게 되었다.선승의 노동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중생교화를 이끄는 무언의 설법이며 가르침이다. 사실 날이면 날마다 흙속에 묻혀 살아가는 피곤한 육신을 지닌 농민들에게 참선만이 최고라며 그들에게 참선의 효율성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겠는가. 관문스님은 그 점을 잘 살펴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 속에서 부처님 자비와 함께 자연이 주는 깨달음을 통해 불법의 근본에 이르게 한 것 같다. 그들과 피부로 접촉하고 눈길을 주고받으며 동체대비를 나누는 그 모습은 어떤 수좌의 가르침보다도 가슴에 와 닿았을 것이다. 스님의 그런 동사섭(同事攝)의 삶은 그대로 아름다움이며 참수행이리라.

▩ 서울 반야사 주지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뵙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회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증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청강 대진 합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가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 선무도 겨울 수련회

禪武道 大金剛門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를 위한 겨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 간 : 2001년 12월 1일부터 3개월간(1주, 2주, 1개월단위)
▶대 상 :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행단체, 각종 사회 단체 위탁 연수)
▶수련내용 : 참선, 선요가, 선무술, 전통문화(무용, 다도) 불교 교리 강의
▶동 참 금 : 학생(1일 - 2만 5천원, 1개월 - 60만원) 일반(1일 - 3만원, 1개월 - 65만원)
▶접수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단체 연수가 많으므로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예약없이 입산 불가)
▶수 련 비 입 금 계 좌 : 농 협 721107-52-037300 예금주) 설기준
▶준 비 물 : 개인 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필기도구

1천 5백년전 신라시대에 창건된 골굴사의 부설 선무도 대학에서 주관하는 본 수련회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대 자연 속에서 불교와 선무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화랑정신을 배운다. 신기공 수련으로 정서불안과 각종 성인병 만성병을 치료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소홀한 인성교육의 효과를 얻는다. 특히 피로에 지친 입시생들의 심신회복에 도움이 크다.

일 과 표

| | | | |
|---|---|---|---|
| 4시 | 기상, 예불 (불참시에는 3천배 참회 및 전 대중이 1일 불식) | 13시 | 독서와 사색 |
| | | 14시 | 오후수련 및 전통문화 강습(학생) |
| | | 16시 | 운력(도량 청소 및 정비작업) |
| 5시 | 좌 선 | 18시 | 저녁공양 |
| 6시 | 조깅, 등산 | 19시 | 예불후 학생은 자율학습 및 참회록쓰기 |
| 7시 | 아침공양(발우공양) | 19시30분 | 저녁수련(일반인) |
| 9시 | 오전수련 | 21시 | 점호 및 취침 |
| 11시 | 108배 참회기도(자아를 항한 서원) | | |
| 12시 | 점심공양 | | |

※ 입산 후 개인 외출, 이성교제, 술, 담배, 간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어길 경우, 3천배 참회 및 죽비나 회초리로 체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golgulsa.com 또는 sunmudo.com
※ 수련회 참가자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지난 10月28日 선무도 대학 생활관을 착공 하였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경북 경주시 양북면 안동리 산 304번지
**세계 선무도 협회 대금강문 선무도 대학**

#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증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증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험하여 많은 분들께 복왕시켜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8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 현대해상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